

부모학대 및 방임이 남녀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과 교사친밀감의 조절효과

임양미*¹⁾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부교수*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on male·female high school students' ego-resilience and self-esteem: Moderating roles of peer attachment and closeness to teachers

Lim, Yangmi*¹⁾

*Associate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eonj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on male·female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moderating roles of peer attachment and closeness to teachers in the process. By using the second to the seventh years' data of 4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 panel participating in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KCYPS), the study calculated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rformed hierarchical regression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for male high school students, as each level of child abuse, peer attachment, and closeness to teachers was higher, the level of ego-resilience was higher. However, as the level of child neglect was higher, the level of ego-resilience was lower. For female high school students, as the level of child neglect was higher, the level of ego-resilience was lower, while each level of peer attachment and closeness to teachers was higher, the level of ego-resilience was higher. In addition, for only male high school students, peer attachment moderated the effect of child abuse on ego-resilience. On the other hands, for both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as the level of child abuse and neglect were higher, the level of self-esteem was lower, while each level of peer attachment and closeness to teachers was higher, the level of self-esteem was higher. Moreover, for only female high school students, peer attachment moderated the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on self-esteem.

1) 교신저자: Lim, Yangmi, 303 Cheonjam-ro, Wansan-gu, Jeonju, Jeonju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Tel: 063-220-2338, Fax: 063-220-2053, E-mail: ym68@jj.ac.kr

Key words: 학대(child abuse), 방임(child neglect), 자아탄력성(ego-resilience), 자아존중감(self-esteem), 또래애착(peer attachment), 교사친밀감(closeness to teacher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몇 년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그 발생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18,573건으로 이러한 수치는 2013년 6,797건의 약 3배에 해당되며 이 중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80.5%)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중복학대(48.0%)를 제외하고, 단일 학대유형으로 정서학대(19.1%), 방임(15.7%), 신체학대(14.6%), 성학대(2.6%) 순으로 발생율이 높았다. 학대를 경험하는 자녀 연령의 경우 만 13~15세(22.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만 10~12세(20.6%) 이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5).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시기에 아동학대 발생율이 높은 이유는 발달 및 환경적 특성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우선 이 시기의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가 증가하며, 점차 학업성취에 대한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와의 갈등이 가시화된다(Laible, Garlo, & Roesch, 2004).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아동 및 청소년은 공격성, 비행 등의 외현화 문제 뿐 아니라(Kim & Kim, 2018; Park & Lim, 2014), 우울, 사회적 위축 등의 내현화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Miller, Esposito-Smythers, Weismore, & Renshaw, 2013; Park & Lim, 2014). 학대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행동은 자녀가 가정 내에서 자신에게 학대를 행하는 부모의 행동을 내면화하거나, 문제해결 수단으로 폭력 외, 다른 대안을 학습할 기회가 부족한 점이 원인이 될 수 있다(Patterson, 2002). 또한 인간은 주 양육자인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실행모델을 형성하므로(Bowlby, 1982),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경우 자신을 무력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또는 타인을 적대적인 존재로 인식하여 부적응을 유발하게 된다는 설명도

가능하다(Bolger, Patterson, & Kupersmidt, 1998).

이상에서 언급한 아동학대로 인해 발현되는 문제행동 기저에는 손상된 자아개념이 있다(Huang, 2010). 즉, 아동 및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경우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 등의 자아개념이 손상됨으로써 결국 공격성과 우울 등의 내현적·외현적 문제행동으로 표출된다(Kim & Kim, 2018; Lee & Kim, 2017).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은 부모 양육방식 및 학대 등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다루어지는 자아개념 유형으로, 이 두 구인은 개념상 구분된다. 자아탄력성은 새롭게 나타나는 환경에서 자아통제 수준을 적절히 유지하여 목표에 달성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으로 정의되며(Block & Kremen, 1996),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고 유능한 존재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Huang, 2010; Seo, 2013). 이와 같이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은 부모학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행동의 기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초점을 맞추어 부모학대와 방임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부모학대는 그 유형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점이 몇몇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고 있으나, 그 결과는 일관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Lim과 Lee(2017)의 연구결과 부모방임이 학대에 비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컸던 반면 Cheon(2009) 연구에 의하면,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학대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oh와 Hong(2017)의 연구결과, 자아탄력성과 관계가 큰 학대유형은 부모의 방임,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순이었다.

한편 부모학대와 방임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학교 등 가정 밖 생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주변 사회적 관계에 의해 완화 또는 강화될 수 있다. 우선 부모학대가 아동 및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또는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교사 및 또래지지에 의해 경감될 수 있다는 점이 다수의 연구들(Kim, 2015; Lee & Back, 2014; Yang, 2013)을 통해 보

고되었다. 예를 들어, Kim(2015)과 Yang(2013)에 의하면, 가정 내 폭력 또는 아동학대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또래애착에 의해 완화되었다. 또한 Lee와 Back(2016)의 연구결과 학대피해경험이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주변 환경으로부터 정서적·정보적·물질적·평가적 지지를 받는 정도가 높을수록 학대피해경험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었다. 반면 몇몇 연구자들에 의하면, 부모학대와 방임을 통해 경험한 부정적인 관계 요소는 교사 및 또래관계에 전이되어 결국 자녀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 즉, 부모로부터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경우 타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내적실행모델을 형성하게 되어 교사 및 또래와의 애착형성이 어렵게 됨으로써 부정적인 부모와의 관계 외, 교사 및 또래관계가 더해져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더 크게 손상될 수 있다(Lim & Lee, 2017; Park & Lim, 2014; Riggs, 2010). 이와 같이, 부모학대와 방임이 자녀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또래 및 교사관계의 조절효과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고 있지 않다.

또한 부모학대 및 방임이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교사 및 또래의 조절효과는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몇몇 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 보고되었다. 여성은 관계지향적인 사회화 영향으로, 남성에 비해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역기능적인 부모양육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Cyranowski, Frank, Young, & Shear, 2000).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듯이, Yoon과 Choi(2004)의 연구결과 과잉기대 및 간섭 등의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낮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의 강도는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Lee와 Han(201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민주적·자율적 양육행동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교사지지의 조절효과가 여아에 한해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교사지지가 높은 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여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수적으로 매우 부족할 뿐 아니라 그 결과도 일관되지 않으며, 특히 부모학대와 방임에 초점을 맞추어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교사 및 또

래관계의 조절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성별에 따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상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모학대 및 방임이 고등학교 시기 자녀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이 과정에서 또래애착 및 교사친밀감의 조절효과를 성별에 따라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학대 발생물은 아동 후기와 청소년 초기에 가장 높으며, 부모학대와 방임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경우 그 부정적 영향이 일시적으로 경험한 경우에 비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으므로(Kim & Chung, 2013),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때부터 경험한 학대와 방임이 고등학생이 된 자녀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시기는 중학교에 비해 학업성취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대학 입학 및 진로탐색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중됨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는데 있어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이 주요한 심리적 자원이 된다. 또한 이 시기의 자녀는 학교생활에 있어 교사 및 또래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Ryu & Choi, 2012), 부모학대와 방임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 과정에 있어 또래 및 교사의 조절효과를 성별에 따라 분석하는 시도는 학대 및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을 더 잘 이해하며, 성별에 맞는 효과적인 상담 및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부모학대와 방임이 남녀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또래애착 및 교사친밀감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학대와 방임이 남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또래애착 및 교사친밀감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러 연구를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표현을 자주 하며 행동에 대해 감독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할수록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 Kim, 2011; Lim, 2013). 특히 Lim(2013) 및 Kim과 Kim(2011)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양육행동의 요소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Lim(2013)의 연구결과 애정, 감독은 모두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모의 합리적 설명은 자아탄력성에만, 일관성 수준은 자아존중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im과 Kim(201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성을 존중할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던 반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성취지향적일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았다. 한편 자녀에게 처벌을 가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으며 지배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 또한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Darling & Steinberg, 1993; Milevsky, Schlechter, Netter, & Keehn, 2007).

자녀에게 신체적 처벌과 언어적 모욕 등을 가하는 학대와 자녀에게 필요한 의식주, 교육, 의료적 조치 및 지원 등을 제공하지 않은 방임 또한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부모로부터 학대 및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학대로 인한 외상과 거부된 경험, 무력감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Kim, 2015). 또한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 경험은 자아탄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는데(Noh & Hong, 2017),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경우 문제 해결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부모의 방식을 학습함으로써 합리적인 문제해결전략을 습득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며 결국 자아탄력성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Kim & Kim, 2018).

한편 학대 유형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Cheon(2009)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경험한 신체적 학대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학대에 비해 부모의 방임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고한 Lim과 Lee(2017)의 연구와도 일관된다. 또한 Han(2006)의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경험한 신체적 학대와 방임 모두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제시되었으며, Noh와 Hong(2017)의 연구결과 부모의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 모두 자아탄력성과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관계의 강도가 가장 큰 학대의 유형은 방임이었으며 그 다음은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순이었다.

2. 부모학대와 방임이 자녀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또래애착 및 교사친밀감의 조절효과

아동 및 청소년은 학교에서 주로 생활을 하므로 학교에서 맺게 되는 다양한 인간관계는 부모학대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몇몇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의 다양한 인간관계는 부모학대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보호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Cicchetti, Rogosch, Lynch, & Holt, 1993). Kim(2015)과 Yang(2013)은 모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정 내 폭력 또는 아동학대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또래애착에 의해 완화됨을 입증하였다. 또한 Lee와 Back(2016)의 연구결과 학대피해경험이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주변 환경으로부터 정서적·정보적·물질적·평가적 지지를 받는 정도가 높을수록 학대피해경험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었다. 그리고 학대를 경험한 초등학교 아동의 사회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을 탐색한 Jo(2014)의 연구결과, 교사와 또래의 지지가 주요한 보호요인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부모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아동 및 청소년은 타인에 대

한 적대감으로 인해 또래 및 교사와 친밀한 관계형성이 저해되어 부모학대와 방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또래 및 교사관계를 통해 전이되거나 또래 및 교사관계에 의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 Lim과 Lee(2017)는 부모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또래와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또래애착이 낮아져 오히려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경우 타인을 적대적이고 거절하는 존재로 인식하여 타인과의 관계형성이 어려워 자아를 무기력한 존재로 인식한다는 Riggs(2010)의 주장과도 일관된다. 또한 Park과 Lim(2014)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방임이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이 교사와의 친밀감이 낮을 경우 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과 흐름을 같이하여 Wilkinson(2004)은 청소년기 부모와 또래관계에 대한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보완·경쟁 모델에 의하면, 청소년기의 부모와 또래관계는 경쟁적이며, 부모(또래)로부터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을 경우 또래(부모)관계를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욕구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모델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경험한 학대의 부정적 영향은 또래관계에 의해 경감될 수 있다. 반면 연속성·인지 모델에 의하면, 청소년기의 또래관계 질은 부모와의 관계의 질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한 타인에 대한 내적실행모델이 또래로 그대로 전이된다는 애착이론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한편 부모학대 및 방임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 몇몇 소수의 연구를 통해 보고됨으로써 향후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모학대의 영향을 규명할 경우 자녀의 성별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Yoon과 Choi(2004)의 연구결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im과 Kwon(2010)의 연구에서는 손상된 자아개념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적 위축에 대한 부모 양육행동의 영향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아의 경우 부모의 애정 및 자녀를 수용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위축정도가 높아진 반면 여아의 경우 이러한 양육방식과 사회적 위축 간에는 어떠한 관계도 발견되지 않았다. 더욱이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또래에 대한 애착이 높으며(Jung & Ahn, 2011),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교사와 친밀감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어(Jung, 2011) 부모학대와 방임과 같은 부모양육방식이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또래애착과 교사에 대한 친밀감의 조절효과 또한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반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 타인지향적 성향으로 인해, 자아개념에 대한 부모 및 교사, 또래의 영향이 더 클 수 있다(Song, 1995). 이를 입증하듯이 Lee와 Han(2013)의 연구에서는 여아에 한해서 어머니의 민주적·자율적 양육행동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교사지지의 조절효과가 제시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교사지지가 높은 집단에 한해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에서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에 참여한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2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의 자료(1,750명)를 활용하였다(NYPI Youth and Children Data Archive, 2018). 본 연구대상의 일반 배경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우선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자(52.5%)와 여자(47.5%)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아버지가 취업한 경우가 88.7%,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는 61.7%이었다. 또한 아버지의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인 경우가 42.9%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44.8%로 가장 많았다. 본 연구대상의 평균 가구 연간소득은 49,524,000원($SD=22,000,000$)이었다.

2. 자료수집 방법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10년부터 자료수집이 시작되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ategories		Frequency (%)	
Sex	Male	919	(52.5)
	Female	831	(47.5)
	Totals	1,750	(100.0)
Employ Status of rearer (multiple-responses)	Father employment	1,553	(88.7)
	Mother employment	1,080	(61.7)
	Other caregivers employment	4	(0.2)
Fathers' education	Less than graduation of middle school	42	(2.7)
	Graduation of high school	607	(38.5)
	Graduation of college	169	(10.7)
	Graduation of university	676	(42.9)
	Graduation of graduate school	82	(5.2)
	Totals	1,576	(100.0)
Mothers' education	Less than graduation of middle school	31	(1.9)
	Graduation of high school	715	(44.8)
	Graduation of college	256	(16.1)
	Graduation of university	548	(34.4)
	Graduation of graduate school	45	(2.8)
	Totals	1,595	(100.0)

었으며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패널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NYPI는 1차년도에서 7차년도에 해당되는 자료(2010~2016년)를 공표하였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경험한 부모학대와 방임이 고등학교 시기가 된 후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이 과정에서 또래애착과 교사친밀감의 조절효과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부모학대와 방임의 경우 이 변인이 측정되기 시작한 2차년도(초등학교 5학년)부터 7차년도(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자료를 모아 그 평균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및 교사친밀감의 경우 7차년도 자료(고등학교 1학년)를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6년 간의 학대 및 방임 자료값 중 누락되거나 그 외, 다른 변인의 결측치를 포함한 대상은 모두 제외하고 남은 1,750명이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자아탄력성

본 연구대상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Block과 Kreman(1996)이 개발한 척도를 You와 Shim(2002)이 번역한 뒤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 척도는 총 14개의 문항으로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며 모든 문항은 역채점을 수행하였다. 자아탄력성 척도의 점수범위는 14~5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대상의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86이었다.

2) 자아존중감

본 연구대상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Korea University Behavior Science Research Institute, 2000)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고 1,3,4,7,10번 문항은 역채점을 수행하였으며 나머지 문항은 그대로 채점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점수범위

는 10~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대상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84이었다.

3) 부모학대와 방임

본 연구대상이 경험한 부모학대와 방임을 측정하기 위해서 Huh(2000)와 Kim(2003)이 개발한 부모학대와 방임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학대와 방임 척도는 각각 총 4개의 문항으로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학대 척도의 경우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께서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설을 하신 적이 많다' 등의 신체적·언어적 학대와 관련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부모방임 척도의 경우 '부모님께서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 시, 부모학대 척도의 경우 모든 문항을 역채점한 후 합산한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부모방임 척도는 원문항 그대로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부모학대와 방임 척도의 가능한 점수는 각각 4~1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대상이 부모로부터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학대와 방임의 6년간 자료의 평균치를 사용하였으므로, 부모학대와 방임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부모학대의 경우 .84, 부모방임의 경우 .71이었다.

4) 또래애착

연구대상의 또래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척도를 Hwang(201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또래애착 척도는 의사소통(3문항), 신뢰(3문항), 소외(3문항) 총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며 소외 하위척도 3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 대해 역채점을 수행한 후, 9개 문항을 합산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또래애착 척도의 점수범위는 9~3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대상이 또래와 의사소통 및 신뢰 수준이 높고 소외감을 느끼는 정도가 낮아 또래애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래애착 척

도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83이며, 각 하위척도별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의사소통 하위척도 .80, 신뢰 하위척도 .82, 소외 하위척도 .73이었다.

5) 교사에 대한 친밀감

연구대상의 교사에 대한 친밀감을 측정하기 위해 Min(1991)이 개발한 학교생활적응 척도 중 교사관계 하위척도(5문항)를 사용하였다. 교사관계 하위척도의 문항은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등의 5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 시, 교사에 대한 친밀감 척도 모든 문항에 대해 역채점을 수행하였다. 교사에 대한 친밀감 척도의 점수범위는 모두 5~20점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대상이 교사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교사에 대한 친밀감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81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우선 연구대상의 배경과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문항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차이검증(t검증, 일원변량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각 종속변인에 대한 부모학대와 방임의 영향과 또래애착과 교사친밀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의 성별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문제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에 앞서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본 연구의 독립변인 외,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Brooks-Gunn, Klebanov, Liaw, & Duncan, 1995)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학력, 취업상태 등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취업상태, 부모의 학력,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자아탄력성에 차이가 없었다. 반면 자아존중감의 경우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한해서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었으며($t=-2.628, p<.05$),

부모의 취업상태, 부모의 학력 수준의 경우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자아존중감에 한해서 영향을 미쳤을 뿐 자아탄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그 외, 배경변인은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특히 자아존중감의 경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여 본 연구의 독립 및 조절변인들과 함께 회귀분석을 수행해본 결과,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의미 있는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던 반면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에 한해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의 영향력($\beta=.05$, $p<.05$)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경제적 수준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강도가 크지 않고, 경제적 수준 포함여부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대한 본 연구의 독립 및 조절변인들의 영향력 강도 및 방향에 있어 차이가 나지 않았으므로, 각 종속변인에 대한 회귀분석에 투입된 변인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수준을 포함한 모든 배경변인을 최종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위계적 회귀 분석 시, 1단계에서 본 연구에서 선정한 독립변인인 부모학대와 방임, 또래애착과 교사친밀감을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 또래애착과 교사친밀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학대와 방임, 또래애착과 교사친밀감의 상호작용 항을 생성하여 투입하였다. 특히 이와 같은 과정을 수행하는 동안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절차를 적용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의 일반적 경향 및 상관관계 분석과 연구문제 1,2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과 상관관계

본 연구의 측정변인인 남녀 고등학생의 부모학대 및 방임경

험, 또래애착, 교사친밀감,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의 문항평균(M)과 표준편차(SD)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연구대상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경험한 학대와 방임 문항평균은 각각 1.66($SD=.42$), 1.71($SD=.35$)로 가능한 점수범위(1~4점)를 고려해 볼 때,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연구대상의 또래애착, 교사친밀감의 문항평균은 3.16($SD=.44$)과 3.03($SD=.56$)으로 가능한 점수범위(1~4점)를 고려해 볼 때,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연구대상의 자아탄력성 문항평균은 2.91($SD=.42$)로 자아존중감($M=3.04$, $SD=.45$)에 비해 다소 낮았다.

한편 측정변인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Table 2> 참조), 부모학대와 방임경험 모두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제시되었으나 부모방임과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강도가 부모학대와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강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애착과 교사친밀감은 모두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독립변인으로 제시된 부모학대와 방임, 또래애착, 교사친밀감은 모두 .50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크게 제시되지 않았으며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 간에는 .54 정도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연구대상의 성별에 따라 측정변인 평균값에 차이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부모방임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자 고등학생이 여자 고등학생에 비해 부모학대($t=.18$, $p<.001$), 자아탄력성($t=.10$, $p<.001$), 자아존중감($t=.07$, $p<.05$), 교사친밀감($t=.07$, $p<.05$) 평균에 있어 모두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또래애착($t=.06$, $p<.05$)에 있어서는 여자 고등학생이 남자 고등학생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우선 이러한 결과는 학대발생율이 여아에 비해 남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한 전국 아동학대 실태조사 결과(Ministry of Health & Welfare &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5)와 일관된다. 또한 이 결과는 남학생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여학생에 비해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Daniel & Wassell, 2002), 또래애착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고(Jung & Ahn, 2016)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교사와의 친밀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Jung, 2011) 연구결과들과 일관된다. 한편 성별에 따라 측정변인의 상

Table 2.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and correlations among variables($n=1,750$)

Variables	1	2	3	4	5	6
1. Child abuse						
2. Child neglect	.39**					
3. Peer attachment	-.29**	-.36**				
4. Closeness to teachers	-.14**	-.32**	.38**			
5. Ego-resilience	-.06**	-.30**	.42**	.44**		
6. Self-esteem	-.25**	-.36**	.47**	.38**	.54**	
<i>M</i>	1.66	1.71	3.16	3.03	2.91	3.04
<i>SD</i>	.42	.35	.44	.56	.42	.45

** $p < .01$

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자 고등학생과 여자 고등학생 모두 <Table 2>에서 제시된 상관관계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2. 부모학대와 방임이 남녀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또래애착 및 교사친밀감의 조절효과

연구문제 1에서 제시된 부모학대 및 방임이 남녀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또래애착과 교사친밀감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우선 남자 고등학생의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인 모두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학대($\beta = .14$), 방임($\beta = -.14$), 또래애착($\beta = .29$),

교사친밀감($\beta = .34$) 모두 남자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부모학대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애착 및 교사친밀감 수준이 높을수록 남자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수준은 높았던 반면, 부모방임 수준이 높을수록 남자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수준은 낮았다. 또한 부모학대 및 방임이 남자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또래애착과 교사친밀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학대 및 방임과 또래애착, 교사친밀감 간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1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인의 영향을 통제한 이후에도 추가로 자아탄력성 변량의 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상호작용 항 중 부모학대와 또래애착 간의 상호작용 항($\beta = .1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즉, 부모학대가 남자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또래애착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Table 3. The hierarchical regression of high school students' ego-resilience by sex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Ego-resilience			
		Male students		Female students	
		1st step β	2nd step β	1st step β	2nd step β
Child abuse		.14***	.12***	.05	.05
Child neglect		-.14***	-.14***	-.15***	-.15***
Peer attachment		.29***	.31***	.31***	.30***
Closeness to teachers		.34***	.32***	.25***	.24***
Child abuse x Peer attachment			-.11**		.03
Child neglect x Peer attachment			.03		-.01
Child abuse x Closeness to teachers			.06		-.02
Child neglect x Closeness to teachers			-.03		-.06
ΔR^2		.32***	.01*	.27***	.01
Total R^2			.33		.28
<i>F</i>			55.47***		39.67***

* $p < .05$, ** $p < .01$, *** $p < .001$

과는 또래애착 수준에 따라 부모학대가 남자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는 점을 의미한다. 회귀방정식에 투입된 변인들은 남자 고등학생 자아탄력성 변량의 총 33%를 설명해 주었다.

다음으로, 여자 고등학생의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 고등학생의 결과와 다르게 1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인 중 부모학대를 제외한 부모방임($\beta = -.15$), 또래애착($\beta = .31$), 교사친밀감($\beta = .25$)이 여자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방임 수준이 높을수록 여자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수준은 낮았으며, 또래애착 및 교사친밀감 수준이 높을수록 여자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수준은 높았다. 남자 고등학생과 마찬가지로 부모학대 및 방임이 여자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또래애착과 교사친밀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학대 및 방임과 또래애착, 교사친밀감 간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추가 설명량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학대 및 방임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또래애착과 교사친밀감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회귀방정식에 투입된 변인들은 여자 청소년 자아탄력성 변량의 총 28%를 설명해 주었다.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남녀 고등학생 모두 부모방임이

자아탄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친 결과는 부모방임과 자아탄력성 간에 부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한 Noh와 Hong(2017), Han(2006)의 연구결과를 지지해 준다. 또한 또래애착과 교사친밀감이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는 또래애착 및 교사친밀감과 자아탄력성 간에 정적 관계를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들(Jo, 2014; Lim, 2013)과 일관된다. 한편 학대의 경우 남자 고등학생에 한해서,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는 부모학대가 자아탄력성 간에 부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한 Han(2006)과 Noh와 Hong(20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측정된 부모학대 평균값 수준, 사회문화적 영향, 성별에 따른 부모 사회화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부모학대가 남자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또래애착의 조절효과가 제시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부모학대(독립변인)와 또래애착(조절변인)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하 두 집단으로 나눈 후, 자아탄력성 평균값을 산출하여 작성한 그래프는 <Figure 1>과 같다. <Figure 1>에 의하면, 또래애착 수준에 따라 부모학대와 자아탄력성 간의 기울기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울기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방식을 적용하여 또래애착 수준별로 부모학대와 자아탄력성 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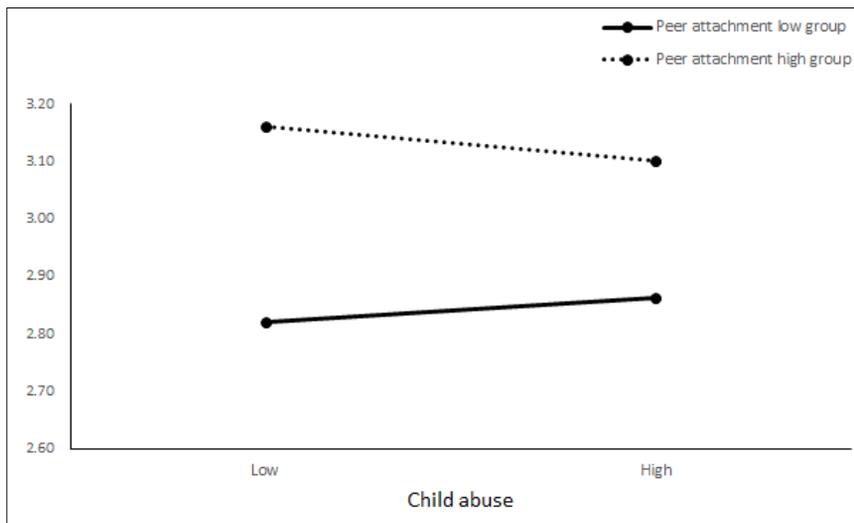


Figure 1. Moder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and male high school students' ego-resilience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and male high school students' ego-resilience by the level of peer attachment

Peer attachment	Dependent Variables	Ego-reliance(male students)
Low group(n=553)		$\beta = .13^{**}$
High group(n=366)		$\beta = -.07$

** $p < .01$

회귀계수(β)를 산출한 결과, 또래애착이 낮은 집단에 한해서 부모학대가 남자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beta = .13$)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또래애착이 낮은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학대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졌다(<Table 4> 참조).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학대피해경험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부정 영향이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완화된다고 보고한 Lee와 Back(2016)의 연구와 일관되지 않았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부모학대의 영향력은 또래애착 정도가 낮을 경우 오히려 강하게 드러남으로써 자아탄력성에 대한 부모와 또래관계의 영향력이 서로 상충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3. 부모학대와 방임이 남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또래애착 및 교사친밀감의 조절효과

연구문제 2에서 제시된 부모학대 및 방임이 남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 과정에서 또래애착과 교사친밀감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우선 남자 고등학생의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인 모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학대($\beta = -.09$), 방임($\beta = -.12$), 또래애착($\beta = .35$), 교사친밀감($\beta = .19$)은 모두 남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부모학대와 방임수준이 높을수록, 남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Table 5. The hierarchical regression of high school students' self-esteem by sex

Independent variables	Self-esteem			
	Male students		Female students	
	1st step β	2nd step β	1st step β	2nd step β
Child abuse	-.09**	-.09**	-.09**	-.09**
Child neglect	-.12***	-.12***	-.18***	-.17***
Peer attachment	.35***	.34***	.31***	.32***
Closeness to teachers	.19***	.19***	.19***	.20***
Child abuse x Peer attachment		.04		.10**
Child neglect x Peer attachment		-.02		-.08*
Child abuse x Closeness to teachers		-.00		-.01
Child neglect x Closeness to teachers		.00		.02
ΔR^2	.31***	.00	.32***	.01*
Total R^2		.31		.33
F		50.93***		49.39***

* $p < .05$, ** $p < .01$, *** $p < .001$

수준이 낮았으며 또래애착 및 교사친밀감 수준이 높을수록 남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높았다. 또한 부모학대 및 방임이 남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또래애착과 교사친밀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학대 및 방임과 또래애착, 교사친밀감 간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추가 설명량은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남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모학대 및 방임의 영향은 또래애착과 교사친밀감에 의해 조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방정식에 투입된 변인들은 남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변량의 총 31%를 설명해 주었다.

다음으로, 여자 고등학생의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학대($\beta = -.09$), 방임($\beta = -.18$), 또래애착($\beta = .31$), 교사친밀감($\beta = .19$) 모두 여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부모학대와 방임수준이 높을수록, 여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았으며, 또래애착 및 교사친밀감 수준이 높을수록 여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높았다. 또한 부모학대 및 방임이 여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또래애착과 교사친밀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학대 및 방임과 또래애착, 교사친밀감 간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1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인의 영향을 통제한 이후에도 추가로 자아존중감 변량의 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상호작용 항 중 부모학대와 또래애착 간의 상호작용 항($\beta = .10$)과 부모방임과 또래애착 간의 상호작용 항($\beta = .08$)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부모학대와 방임이 여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또래애착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애착의 수준에 따라 부모학대 및 방임이 여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는 점을 의미한다. 회귀방정식에 투입된 변인들은 여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변량의 총 33%를 설명해 주었다.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남녀 고등학생이 경험한 부모방임과 학대 모두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는 Lim과 Lee(2017)의 연구결과와 일관되며, 또래애착 및 교사친밀감이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들(Lim, 2013; Park & Lim, 2014)과 일치하였다.

한편 부모학대와 방임이 여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또래애착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부모학대 및 방임(독립변인), 또래애착(조절변인)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하 두 집단으로 나누어 자아존중감 평균값을 산출하여 작성한 그래프는 <Figure 2>, <Figure 3>과 같다. <Figure 2>, <Figure 3>에서 제시된 또래애착 수준에 따른 기울기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Aiken과 West(1991)의 방식을 적용하여 또래애착 수준별로 부모학대 및 방임과 자아존중감 간의 회귀계수(β)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6>, <Table 7>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부모학대가 여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beta = -.31$)은 또래애착이 낮은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완화된다는 Kim(2015)과 Yang(2013)의 연구결과와는 일관되지 않는 반면 부모의 학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부정적 또래관계를 통해 전이 또는 강화된다고 주장한 Lim과 Lee(2017), Riggs(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해 준다.

반면 부모방임이 여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또래애착이 낮은 집단($\beta = -.28$)과 높은 집단($\beta = -.34$)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났으며 또래애착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부모방임이 여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여자 고등학생이 경험한 부모방임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애착 수준과 상관없이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또래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그러한 영향력의 크기가 더 커진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자신의 평가에 있어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성향(Song, 1995)으로 인해, 또래와 정서적으로 밀착될수록 상호작용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모 양육태도를 또래 부모와 비교할 기회가 많아짐으로써 부모방임이 자신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더 강화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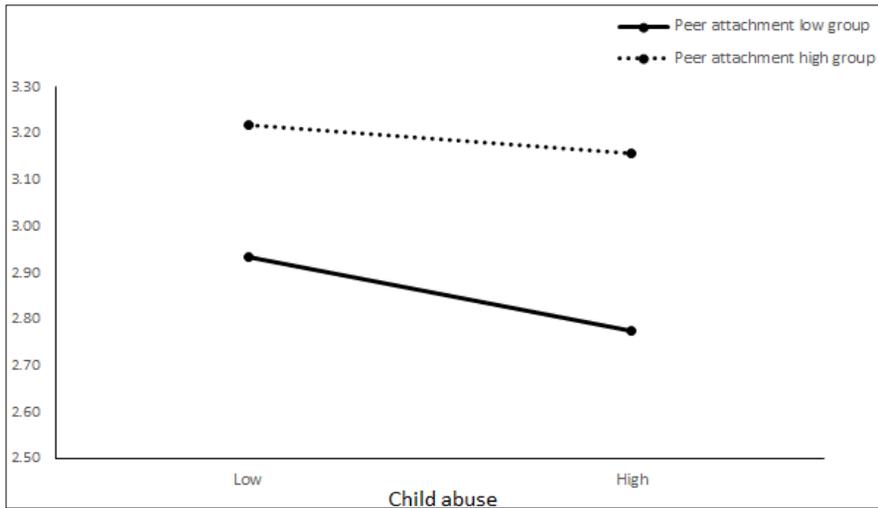


Figure 2. Moder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self-este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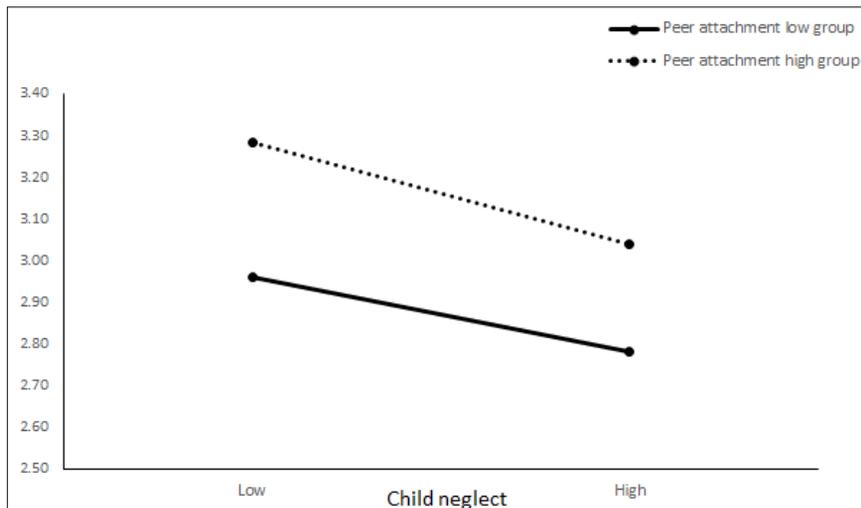


Figure 3. Moder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neglect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self-esteem

Table 6.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self-esteem by the level of peer attachment

Peer attachment	Dependent Variables	Self-esteem(female adolescents)
Low group(n=446)		$\beta = -.31^{***}$
High group(n=385)		$\beta = -.09$

*** $p < .001$

Table 7. Relationship between child neglect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self-esteem by the level of peer attachment

Peer attachment	Dependent Variables	Self-esteem(female adolescents)
Low group(n=446)		$\beta = -.28^{***}$
High group(n=385)		$\beta = -.34^{***}$

*** $p < .001$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자료 중 초등학교 4학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까지 지속적으로 경험한 부모학대와 방임이 남녀 고등학생 자녀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이 과정에서 또래애착과 교사친밀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얻어진 주요결과를 논의하고, 학대 예방을 위한 가정과 교과의 역할과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고려할 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과 관련되어 부모방임 및 학대가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었으며, 남학생에 한해서 부모학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또래애착의 조절효과가 제시되었다. 우선 남녀 고등학생 모두 성별에 상관없이 부모방임은 자아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Noh와 Hong(2017) 등의 선행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반면 남자 고등학생에 한해서 부모학대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수준 또한 높아졌으며,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학대는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비록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대상은 임상 집단이 아닌 일반 학생으로, 남자 고등학생의 학대평균은 1.75(표준편차 .43), 실제 획득한 문항평균 점수범위는 1~3.56점(4점 만점)이며, 중간 점수인 2.5점 이상 점수를 획득한 경우가 265명(15.1%)이라는 점을 볼 때, 남자 고등학생이 경험한 학대수준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또한 교육열이 높고 성취가 강조되는 한국, 중국 등과 같은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부모의 처벌은 자녀가 올바르게 행동하기 위한 훈육과 관심의 일환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며(Blair & Qian, 1998; Lee & Kwon, 2007), 우리

나라의 경우 실태조사 결과 훈육의 일환으로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폭력을 행한 경우가 33.0%에 이르고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6), 특히 자아탄력성은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과 관련된 요소로 구성된 점을 고려할 때, 학교생활 적응과 학대 간의 관련성을 규명한 Lee와 Kwon(2007)의 연구는 본 연구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신체적 처벌을 경험 하더라도 자신이 잘못해서 받은 훈육의 일환으로 고려하며, 방임을 경험한 경우와 달리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중국 문화권에서는 훈육을 통한 자녀행동에 대한 부모의 통제는 학업성취도를 높인다는 점이 Blair와 Qian(1998)의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신체적 학대와 통제적 양육행동이 반드시 부적응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Blair와 Qian(1998) 연구에서 사용한 통제적 양육방식은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규범에 순응하도록 지시하고 엄격한 훈육을 적용하는 것으로, 학대보다 처벌의 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LaRose & Wolfe, 1987). 그러므로 부모학대가 학업성취도 및 자아탄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때, 학대의 강도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암시된다. 또한 부모는 사회화 과정에서 여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아에게 성취와 성공, 도전, 독립성 등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Buss, 2008), 이는 환경에서 주어지는 목표에 도전하고 자기통제 수준을 유지하면서 성공적으로 목표에 달성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요소로 구성된 자아탄력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부모는 남아에게 이러한 양육목표와 가치를 훈육 등을 포함한 양육행동을 통해 전달하게 되므로, 본 연구대상이 경험한 심각한 수준이 아닌 신체적·언어적 처벌은 남자 청소년에게 관심과 훈육으로 작용되어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와 다르게 여러 연구(Noh &

Hong, 2017; Han, 2006)들을 통해 부모학대는 자아탄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됨에 따라 학대 강도를 고려하여, 자아탄력성에 대한 부모학대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모학대가 남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또래 애착에 의해서 조절되었는데, 또래애착이 낮을 경우에 한해서 부모학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났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추론대로 남학생이 부모의 신체적·언어적 처벌을 훈육과 관심으로 인식할 경우 이러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은 또래애착이 높을 경우 오히려 희석된다는 점이 제기됨으로써 청소년기에 부모와 또래는 경쟁관계라고 주장한 Wilkinson(2004)과 흐름을 같이한다.

둘째,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자아탄력성과 다르게 부모방임 및 학대는 모두 남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에 대한 방임의 영향력이 학대의 영향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방임이 남녀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학대보다 큰 것으로 보고한 Lim과 Lee(2017) 연구결과와 일관된다. 또한 이는 부모가 애정을 표현하지 않으며 엄격하게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경우에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한 몇몇 연구결과(Darling & Steinberg, 1993; Milevsky et al., 2007)와도 일관된다. 따라서 부모의 권력을 기반으로 자녀의 행위를 통제하고, 자녀의 요구를 무시하는 통제적 양육행동은 학대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LaRose & Wolfe, 1987), 통제적 양육행동 및 학대는 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는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지원과 돌봄을 제공하며 자녀의 행동을 규제하고 감독할 경우, 합리적 설명과 애정을 수반한 훈육방법이 적용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부모학대 및 방임이 여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또래애착의 조절효과는 학대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우선 부모학대가 여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또래애착이 낮을 경우 더 강화되었다. 이는 부모학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또래애착을 통이 전이되거나 또래애착이 낮을 경우 더 커진다는 여러 연구결과(Lim & Lee, 2017; Park & Lim,

2014; Riggs, 2010)와 일관된다. 반면 부모방임은 여자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또래애착 정도가 높을수록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부모방임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증가시키는데 또래애착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쳤는지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시기가 학교생활적응이 매우 중요한 과업인 동시에, 자신의 평가에 있어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Song, 1995) 또래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 간의 의사소통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모방임을 통해 경험한 부모의 무관심, 교육적 지원 부족 등을 또래 부모와 비교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학대예방을 위한 예비 부모교육 방향 및 학대경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고려할 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현장에서의 청소년기 예비부모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최근 10대 또는 20대 부모의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예비부모교육이 적절한 시기로 고등학교 시기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예비부모교육은 주로 각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중·고등학교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Oh, 2018). 그러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기 예비부모교육은 학교현장에서 가정과 교과를 통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가정과 교과의 경우 부모교육의 내용이 가정생활 분야의 일부 영역(‘사랑과 결혼’, ‘부모됨의 준비’, ‘임신 중 생활과 출산’, ‘자녀돌보기’, ‘가족문화와 세대 간 관계’)에서 이미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부모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은 가정과 교사가 가정 교과목 시간을 활용해 실시하며 영유아와 직접 만나는 실습과정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Oh, 2018)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 대인관계에 민감한 여자 고등학생은 남자 고등학생에 비해 부모학대와 방임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또래관계를 통해 강화될 수 있으므로, 학대 등과 같은 위험요인에 노출된 청소년을 상담할 경우 또래 관계에 특히 관심을 가지며, 가족해체, 학대 또는 빈곤 등의 취약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또래를 학교생활 도우미로 연결시켜 고민상담과 자기관리 전략을 제공해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반면 본 연구결과 남학생은 여학생

에 비해 교사에 대한 친밀감 수준이 높으며, 부모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또래애착이 낮을 경우 강하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부모학대와 같은 위험요인에 노출된 남자 청소년일수록 오히려 또래에 비해 권위 있는 교사 또는 전문상담가의 중재적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학대와 방임의 경우에 한해서만 아동기부터 고등학교 시기에 이르는 자료의 평균치를 활용하였으며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및 교사친밀감은 모두 고등학교 시기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아동기부터 고등학교 시기에 이르는 동안 부모학대와 방임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또래애착 및 교사친밀감,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 등 종단적 자료를 위한 통계기법을 적용해 부모학대와 방임이 또래애착 및 교사친밀감,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경로를 추적해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학대 및 방임이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교사친밀감의 조절효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몇몇 연구(Jo, 2014)를 통해 부모학대 및 방임이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교사지원을 통해 완화됨으로써 본 연구결과와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한 지속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남자 고등학생이 경험한 심각한 심각하지 않은 수준의 학대는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력은 또래애착이 낮을 경우에 한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Blair, S. L., & Qian, Z. (1998). Family and Asian students' educational performance. *Journal of Family Issues, 19*(4), 355-374.
- Block, H.,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olger, K. E., Patterson, C. J., & Kupersmidt, J. B. (1998). Peer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among children who have been maltreated. *Child Development, 69*(4), 1171-1197.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4), 664-678.
- Brooks-Gunn, J., Klebanov, P., Liaw, F., & Duncan, G. J. (1995).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effects of poverty upon children. In H. E. Fitzgerald, B. M. Lester, & B. S. Zuckerman (Eds.), *Children of poverty: Research, health, and policy issues* (pp. 3-41). New York, NY: Garland Publishing.
- Buss, D. M. (2008). *Evolutionary psychology: The new science of the mind (3rd ed.)*. Boston, Mass.; London: Allyn and Bacon.
- Cheon, S. H. (2009). *Effects of abuse perpetrated by parents on adolescent self esteem and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ji University, Wonju-si, Korea.
- Cicchetti, D., Rogosch, F. A., Lynch, M., & Holt, K. D. (1993). Resilience in maltreated children: Process leading to adaptive outcom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4), 629-647.
- Cyranowski, J. M., Frank, E., Young, E., & Shear, K. (2000). Adolescent onset of the gender difference in lifetime rates of major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7*(1), 21-27.
- Daniel, B., & Wassell, S. (2002). *Adolescence: Assessing and promoting resilience in vulnerable children 3*. London and Philadelphia: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3),

- 487-496.
- Han, K. E. (2006). *The effects of children's abuse experience and ego-resiliency on the post traumatic stress symptom lev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 Huang, C. (2010). Mean-level change in self-esteem from childhood through adulthood: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4(3), 251-260.
- Huh, M. Y. (2000).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hw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Hwang, M. K.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peer attachment of multi-culture children and social anx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 Jo, E. J. (2014). Protective factors for social resilience of risk group of abused children: Comparison between risk group of abused children and normal children. *Forum For Youth Culture*, 39(1), 177-208.
- Jung, B. S. (2011).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early adolescents' trust and closeness with their teachers from the 4th through to the 8th grade. *Studies on Korean Youth*, 22(4), 63-89.
- Jung, C. H., & Ahn, D. H. (2016). Relations of adolescents' peer attachment, social responsibility, and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4), 411-430.
- Kim, J. H., & Kwon, Y. H. (2010).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n gender-specific children's behavior problem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3), 1-13.
- Kim, K. S., & Kim, H. K. (2011). A study on 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 and self-esteem and ego-resilience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9(2), 143-170.
- Kim, N. Y. (2015). The impact of family violence experience of children on their self-esteem - Focused on moder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2), 1-19.
- Kim, S. H., & Kim, H. M. (2018). The effects of adolescents' experiences of abuse damage on aggressiveness in the convergence era: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s of resilie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2), 331-340.
- Kim, S. J., & Chung, I. J. (2013). A longitudinal study of persistent and recency effects of child maltreatment on depression anxiety and agg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43, 1-28.
- Kim, S. W. (2003).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abused children's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orea University Behavior Science Research Institute (2000). *Handbook of psychological scales*. Seoul: Hakjisa.
- Laible, D., Carlo, G., & Roesch, S. C. (2004). Pathways to self-esteem in late adolescence: The rol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empathy, and social behaviours. *Journal of Adolescence*, 27, 703 - 716.
- LaRose, L., & Wolfe, D. A. (1987).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who abuse or neglect their children. In B. B. Lahey & A. E. Kazdin (Ed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 10, pp. 55 - 97). New York: Plenum Press.
- Lee, J. H., & Han, H. S. (2013). The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parenting attitudes and children's ego-resiliency: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2(4), 77-93.
- Lee, J. K., & Back, S. H. (2016). Impacts of abuse damage experience on ego-resilience -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3), 102-115.
- Lee, M. H., & Kim, Y. H. (2017). Adverse childhood experience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21(2), 119-134.

- Lee, T. J., & Kwon, J. H. (2007). A study on the school adjustment of abused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 377-389.
- Lim, Y. M. (2013). Exploration of variables effecting on poor adolescents' self-resilience and self-esteem : Focusing on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and the quality of peer and teacher relationship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5*(2), 147-167.
- Lim, Y. M., & Lee, O. I. (2017).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maltreatment and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Mediating roles of self-esteem and peer attachment.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6*(2), 393-404.
- Milevsky, A., Schlechter, M., Netter, S., & Keehn, D. (2007).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styles in adolescents: Association with self-esteem, depression, and life-satisfac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6*, 39 - 47.
- Miller, A., Esposito-Smythers, C., Weismoore, J., & Renshaw, K. (2013). The relation between child maltreatment and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A systematic review and critical examination of the literature. *Clinical Child & Family Psychology Review, 16*(2), 146-172.
- Min, B. S. (1991). *Effect of school adjustment and self-concept on school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6). The national survey of family violence. Retrieved from <http://cafe.naver.com/topolice/4379>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5). The national report of child abuse of Korea in 2016. Retrieved from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report
- Noh, N. N., & Hong, C. H. (2017). The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buse experience and complex PTSD.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0*(1), 1-19.
- NYPI Youth and Children Data Archive (2018).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Data file]. Retrieved from http://www.nypi.re.kr/archive/brdartcl/boardarticleList.do?brd_id=BDIDX_k9Fd9oFi29nooCcJ7kX114&srch_ctgry_idx=CTIDX00043&menu_nix=qZc474Ak
- Oh, P. R. (2018, January 26). Increasing child abuse perpetrated by young parents... "Necessary for parent education targeting to teenagers and 20s". *The Chosunedu*. Retrieved from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6/2018012601781.html
- Park, J. H., & Lim, Y. M. (2014). The moderating effects of closeness to teacher and peer attachment on the relations between child maltreatment and neglect on adolescents' behavior problem.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1*(3), 87-110.
- Patterson, G. R., (2002). The early development of coercive family process. In J. B. Reid, G. R. Patterson, & J. Snyder (Eds.),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developmental analysis and model for intervention* (pp. 25-4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iggs, S. A. (2010).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the attachment system across the life cycle: What theory and research tell us.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9*, 5-5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yu, J., & Choi, N. H. (2012). The Role of Self-Esteem on Coping Strategy of High-School-3 Graders in Seoul Korea.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4*(1), 81-95.
- Seo, H. N. (2013). *The effects of parental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self-esteem on school age boys' and girls'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Song, M. J. (1995). *Developmental psychology*. Seoul: Hakjisa.
- Wilkinson, R. B. (2004). The role of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in the psychological health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6), 479-493.
- Yang, H. R. (2013). *A study on child self-esteem of maltreated*

- children: Focused on the protective effect of peer attachment by gend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Yoon, J. E., & Choi, M. K. (2004). Maternal parenting, mother-adolescent conflict,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22(5), 237-251.
- You, S. K., & Shim, H. W. (2002).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4), 189-206.

<국문요약>

본 연구는 부모학대와 방임이 남녀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이 과정에서 또래애착과 교사친밀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2~7차년도) 1,750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로부터 학대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애착과 교사친밀감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았으며, 부모방임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은 낮았다. 반면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로부터 높은 수준의 방임을 경험할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은 낮았으며, 또래애착과 교사친밀감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았다. 한편 남자 고등학생에 한해서 또래애착이 부모학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또래애착이 낮은 경우 부모학대경험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자와 여자 고등학생 모두 부모로부터 경험한 학대와 방임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은 낮았으며, 또래애착과 교사친밀감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았다. 한편 여자 고등학생에 한해서 또래애착이 부모학대 및 방임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였다. 구체적으로, 또래애착이 낮은 경우 부모학대경험이 여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이 존재한 반면 또래애착이 높아질수록 부모방임이 여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이 커졌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주요결과를 토대로, 학교현장에서 부모학대 예방차원에서의 가정과 교과의 역할과 학대경험 남녀 청소년을 상담 시, 고려할 점을 제안하였다.

■ 논문접수일자: 2018년 4월 27일, 논문심사일자: 2018년 5월 2일, 게재확정일자: 2018년 06월 26일